

#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 재구성모델 연구\*

The Review & study of reformative model in Korean sacrificial rite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부 교수 두경자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  
Associate prof: Doo, Kyung-Ja

## 〈목 차〉

- |                 |               |
|-----------------|---------------|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IV. 제례 재구성 연구 |
| II. 연구방법        | V. 요약 및 결론    |
| III. 문헌고찰       | 참고문헌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Korean sacrificial rite and reform it to be fit for modern life. the research method is to review literatures such as ancient writings and various references for the sacrificial rite.

The new model of Korean sacrificial rite is as follows;

1. New year's and chusok's sacrificial rite should be omitted and only the anniversary rite be left.
2. Time of anniversary rite should be convenient hour that all attendants can meet and the extent of attendants should be limited into the dead's sons & daughters.
3. Subject of anniversary rite should be limited into the parents.
4. Foods and liquor offered to the dead should be omitted
5. Supervisor of sacrificial rite should be not only the eldest son but also dead's sons and daughters. so the anniversary rite should be rotated among brothers and sisters.

◆ key word: 제례, 검토 평가 재구성

\*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짐.

## I.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예로부터 가정주부는 제례가 행해지도록 모든 준비를 하는 실제적인 주관자였다. 여성들은 어렸을 때부터 제사를 만드는 일을 배우고 익혀서 출가해서는 시댁의 가계계승을 위한 아들 출산과 조상제사 만드는 일을 중요한 의무로 수행하였다(유안진 1980). 특히 중부(宗婦)가 되는 여성은 제삿날을 위해 며칠 전부터 대청소, 제기(祭器), 제복(祭服), 제수(祭需)음식 등에 관한 제사계획과 준비를 하였으며 제사의 종류도 사시제(四時祭), 이제(禰祭), 묘제(墓祭), 속절제(俗節祭), 상중제(喪中祭), 삭일제(朔日祭), 망일제(望日祭) 등 다양하였고 속절제의 다례(茶禮)인 정조(正朝: 정월초하루), 상원(上元: 정월대보름), 청명(淸明), 한식(寒食), 중오(重五: 단오), 유두(流頭), 칠석(七夕), 중구(重九: 구월초야호례), 동지(冬至) 등 세속명절에는 조상에게 제철음식을 만들어 사당에 바칩으로써 여성들은 일년 내내 제사 속에 묻혀 살았으며 평생을 제사와 연관된 삶을 살아왔다.

이와 같이 제례행례의 실제적인 준비자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식 제례의 절차나 제사후의 회연은 남성들이 중심이 되었다. 조선 초기에는 여성도 남성의 서쪽에 서서 제례절차에 직접 참제(參祭)하였고 중부는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아헌관(亞獻官)의 역할을 할 수 있었으나 중기 이후에는 여성들이 완전 배제된 남성들만의 행례(行禮)로 변하였다. 따라서 제관(祭官)들은 모두 남성이었고 여성들은 단지 부업일만을 담당할 뿐 여성들이 직접 만든 제수음식 진설에도 참여하지 못하였다(문옥표 1998).

오늘날은 도시적 생활양식의 보편화, 자유와 평등 사상의 고조, 핵가족, 독신가족의 증가, 여성들의 고학력 추세 등 시대와 사회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여성생활과 역할이 사회 전반적으로 상승되었고 막중해졌으며 직장은 물론 가정에서도 효율적인 생활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관혼상제 중 혼례와 상례는 가정행례에서 사회행례로 탈바꿈하여 (관례는 조선조에도 별로 행해지지 않았음) 혼례는 주로 교회나 예식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례는 농·어·산촌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가

정보다는 영안실에서 장의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매장방식도 화장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다소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제례만이 여전히 구태의연한 모습 그대로 유교식 제례의 기본틀을 유지하고 있어 현대의 효율중시의 삶에 저촉되고 있다. 만약 여성생활의 구속을 요구하는 이러한 제례가 시대적 변화를 외면한 채 계속 강행된다면 제례는 후대들에 의해 배척하고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젊은 여성층에서는 가부장적 구속이 남아있는 결혼생활을 피하고 독신으로 살거나 「살아보고 결혼하자」는 혼전동거(경향신문 1999년 12월 16일자)가 시작되고 있고 신세대들은 미래지향적인 서구의식을 가지고 기존질서를 배척하려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으며(이정우·김연화 1999) 핵가족주부들조차 제례의식 및 기능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임으로써(김인옥 1999) 그러한 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 아직도 유교식 제례를 행례하는 가정이 과반수 이상이고(이정우·김명나 1993, 문옥표 1998, 이정우·김명나 1999) 그러한 결과는 1980년대에 행해진 조사결과(박순천 1986, 박수정 1989)와 거의 유사하여 제례에 관한 한 우리는 여전히 조선시대 속에 머물러 있다. 1969년 가정의례준칙이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면서 오늘에 이르렀으나 가장 최근(1999)에 개정 공포된 가정의례준칙마저 제례 내용자체가 유교적 기본틀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종교마다 제례 절차가 상이하여 제례로 인한 또 하나의 파벌문화를 이 땅에 고착화시킬 위험마저 존재한다.

지금까지 제례관련연구는 여러 분야(문화인류학, 한국사, 사회학, 신학, 종교학, 가정학)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대부분이 실태파악에 국한되었으며 종파를 초월한 제례 재구성의 모형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없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유교식 제례를 검토 분석하여 앞으로 살려나가야 할 제례의 큰 뜻을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대 또는 미래인들의 정서에 맞는 제례 재구성을 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제례 재구성의 기반구축을 위하여 중국 고대로부터 송나라에 이르기까지의 제사관 및 영혼관을 간략히 고찰함으로써 주자가례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였고 우리나라

유교식 제례의 구성요소를 추출하여 검토 분석하였으며 종교에 따른 제례 행례를 이해하기 위하여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신자수의 순)의 종교 제례를 살펴보고 제례 간소화에 대한 남녀시각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제례관을 비교하였으며 동일한 제례문화권에 속해 있는 이웃나라의 제례 간소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국과 일본의 오늘날의 제례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고찰을 토대로 누구나 부담없이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제례절차와 방법을 기본으로 한 현대식 제례를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예나 현재나 제례의 실제적 주관자가 여성이었음을 고려할 때 가정학 분야에서 제례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모색하는 일은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가정경영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는 가정학분야에서의 제례 재구성의 모형은 그 어느 분야의 것보다 타당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II. 연구방법

### 1. 문헌고찰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제례를 고찰, 검토, 논의, 평가하여 우리나라 현대생활에 맞는 새로운 제례 재구성을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방법은 제례에 관한 조선조 각종 예서(禮書)와 논어,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 각 종교의 예식서, 중국의 민속, 일본의 지혜장 및 사전 등 각종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방법을 택하였다. 중국 문헌, 조선조 예서는 완역(完譯)된 저서를 주로 사용하였고 일본의 지혜장, 사전 및 완역본이 없는 조선조 예서 즉 의례문해(疑禮問解)와 가례집람(家禮輯覽)은 원본을 고찰하였다.

### 2. 용어의 정의

제례(祭禮)란 제사 지낼때의 절차나 예절을 의미하며 제전(祭典) 또는 제사(祭祀)라 한다(새국어사전

1996, 장삼식 1981).

본 연구에서는 제사의 절차예절까지 포함된 경우를 의미할 때는 제례로, 단순히 선조 봉양하는 일만을 의미할 때는 제사로 표기하였다.

## III. 문헌고찰

### 1. 중국제례의 이해(고대-송나라)

고려말-조선초 송유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화하여 성리학이 주류를 이루었고 16C 이황(李滉), 이이(李珣:栗谷)을 중심으로 전성기를 맞아 17C에는 예학(禮學)으로 발전하였다. 당시 대표적인 예학자(禮學子)로는 이이(栗谷)의 학풍을 이어 받은 사계 김장생(沙溪 金長生 1548-1631), 도암 이재(陶庵 李穡 1678-1746)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제례의 내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자가례에 담겨진 중국고대의 제사와 영혼관, 주자가례 및 주자의 제사관, 공자의 제사관, 자산(子產)의 조상숭배 등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 1) 중국고대의 제사 및 영혼관

고대 중국의 제사는 하늘(天)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늘(天)에 대한 제사는 임금인 천자(天子)가 지낸 제사였으며 동지제(冬至祭)와 지방순시제(地方巡視祭)가 있었다. 동지제는 태양을 하늘(天)의 상징으로 보고 동지이후부터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대한 감사제였으며 지방순시제는 지방에 도착했음을 하늘에 알리는 고사(告祀)였다(주재용 1995).

천자는 하늘(天)로부터 교·제·정(教·祭·政) 삼권을 위임받았다고 인식함으로써 위로는 하늘을 섬기며 하늘의 뜻에 복종하였고 백성들은 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하늘에 제사함으로써 하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였다.

조상에 대한 제사는 지배계층에서부터 시작되어 피지배계층으로 확산되었다. 사기(史記)의 제사기록에 의하면 BC 25C경 황제가 죽자 그 신하 좌철(左徹)이 그를 기념하기 위하여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의관 및 지팡이 등을 묘에 안치하고 제사지냈다는 기록이 있고 공적기록으로는 순(舜)이 주를 제사직책의 단후(丹侯)로 봉하여 선조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 제물(祭物)로는 죽은이가 생전에 사용했던 먹고 마시는 것, 입고 쓰는 것, 돈, 그릇 등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주재용 1995). 이러한 조상제사는 원시 영혼관에서 비롯되었으며 고대 중국인들은 고대인도, 그리스,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사후(死後)의 영혼은 잔생(殘生)이 존재한다고 믿었다(주재용 1995). 즉 죽음을 통하여 육신은 소멸되나 영혼은 약 120년 동안을 잔생한 후 소멸된다고 믿었고 잔생하고 있는 사후영혼은 물질적 제향을 받지 못하면 굶주려 죽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물질적인 제물의 희생냄새와 술의 향기로 사후영혼들이 잔생한다고 믿었던 중국에서는 6대봉사를, 우리나라에서는 4대봉사를 하였다. 죽음을 통하여 혼기(魂氣)는 공중으로, 형백(形魄)은 지하로 흩어진 부모의 혼백을 갱생(更生)시켜 제사음식을 먹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사때는 음(陰)양(陽)이론을 적용하여 청주(淸酒)를 땅에 쏟아 그 냄새를 지하로 보내 음에서 백을 부르고 희생제물을 죽여 불살라 그 기름 냄새를 공중에 올려 보내 양에서 혼을 불러 일시적으로나마 합혼백(合魂魄)을 시키고자 하였다(주재용 1995). 이러한 봉양(奉養)방법은 잔생하고 있는 부모의 영혼에 효를 계속하고자 하는 추양계효(追養繼孝)였으며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자하는 보본반시(報本反始)사상에서 비롯되었다. 제(祭)는 肉·手·示의 의미를 포함한 상형문자로서 희생고기를 손으로 바친다는 뜻이었다.

## 2) 주자가례 및 주자의 제사관

성호사설의 「귀신은 육신이 없고 다만 기(氣)뿐이다」고 본 기이론(氣理論)과 격몽요결의 「제사는 마땅히 주자가례에 따를 것」이라고 한 내용이나 사례편람의 「가례는 오직 주자의 본문(本文)을 주문으로(主文) 삼고...」등의 예서의 내용들을 볼 때 조선조 예학자들의 규범서는 주자가례(朱子家禮)였으며 철저히 중국의 주자학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주자가례는 가정생활에서 지켜야 할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절을 집중적으로 다룬 저

서이며 주자의 저서는 이외에도 27여종이나 된다. 그러나 주자가례를 포함한 주자의 저서는 독창적으로 창조된 내용들이 아니었고 중국 고대로부터 그 당시까지 존재해왔던 사상 및 관습을 모아서 구성한 것이다. 즉 공자(孔子)의 유교사상(先儒),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불교의 범서(梵書)와 비도(秘道), 중국 고대의 관습이나 사상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자(朱子 또는 朱熹; AD1130-1200)는 송나라 사람으로써 24세까지 불가설(佛家設)의 연구자였으며 그 경험을 토대로 도교(道敎)와 불교(佛敎)사상의 이론을 혼합하여 유일론적 일원론(唯物論的一元論) 즉 성리학(性理學 또는 朱子學)을 집대성하였다. 성리학이란 물질은 영원하며 물질에 포함된 이기(理氣) 또한 영원한 것으로 만물의 형성시에는 이(理)와 기(氣)가 혼돈(서양의 chaos, 즉 무질서가 아니라 분리되기 전의 덩어리를 말함)된 상태를 이루다가 그 혼돈이 음양오행으로 인하여 우주만물을 형성한다고 보는 견해로서 우주만물 형성의 원리를 이기(理氣)로 본 학문이다. 이러한 주자의 만물일원(萬物一元)사상은 인도불가(佛家)의 범아일체(梵我一体) 즉 무(無)에서 환영, 착각인 만유가 생성된다는 사상과 도가(道家)의 도아일체(道我一体) 즉 무(無)에서 도(道)가 생기고 여기서 만유(萬有)가 생성된다는 사상에 근거를 둔 것이다(주재용 1995). 주자학은 1905년 9월 2일 서태후(西太后)에 의해 말살되기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중국 과거시험의 국경교과서 역할을 하였다. 주자학은 처음에는 학문적 형태였으나 후에는 종교적인 측면을 가미하여 유교(儒敎)로서 국민을 교화하였다. 따라서 송나라의 유교는 송유(宋儒·현재 동양유교)로서 선유(先儒) 즉 공자의 유교(儒敎)와 구별된다. 공자는 하늘(天)에 죄를 지으면 달리 빌 곳이 없다(唯天爲大 獲罪於天 無所禱也)고 하여(김학주 1992) 하늘(天)을 공경한데 반해 송유는 물질을 신봉하였다. 주자의 제사관을 보면 주자는 조상신이 반드시 제사때 와서 제수음식을 먹는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주자가례의 제례의 내용은 주자 자신의 제사관이 아니라 고대 중국인들의 영혼 잔생관, 자산(子産)의 시(尸)중심의 제례방법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주자의 제사가 「사람이 죽어서

그 기(氣)가 흩어져 없어진다면 제사는 누구에게 지내는 것입니까?」하고 질문하자 주자는 「조상의 기(氣)는 비록 흩어졌을지라도 그 뿌리는 자손에게 남아있으므로 그 뿌리가 조상의 기(氣)를 잡아당겨 잠시 오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사람이 죽으면 혼백은 분명히 흩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제부터 제사문제는 더 이상 묻지 말고 알아서 하라」(주재용 1995)는 모호한 대답을 하였다.

주자는 사람이 죽으면 흩어져 무로 돌아가므로 제사가 필요 없다고 믿었으나 후손들의 제사에 대한 관심을 무마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상이 가졌던 기(氣)를 유전 받은 자손이 정성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시키면 자손의 기에 이끌린 조상의 기(氣)가 잠깐 와서 머무를 수도 있다는 애매한 제서관을 지녔던 것이다.

### 3) 공자의 제서관

예(禮), 교특성(郊特性)의 기록에서 「옛부터 죽은 자가 그에게 주는 제사를 먹은 것을 본 사람은 없다 제사는 산사람의 주관적 입장에서 귀신이 만족할만한 정성을 드러내 보이는 의식이다」고 하였고 書, 益稷에서 순(舜)의 신화가 제사때 비파를 타면서 노래를 부르면 조상이 온다고 한 말에 대하여 註에서는 「상상으로 오는 것이요, 생각으로 오는 것이지 참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주재용 1995) 선유의 지식인들은 제사때 조상신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제자의 질문에 대한 공자(孔子 BC 551-479)의 대답에서도 명백히 나타난다. 제자 계로(季路)가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하고 묻자 공자는 「아직 사람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찌 귀신 섬기는 법을 아느냐」고 답하였고 「죽음이란 무엇입니까?」하고 묻자 「아직 삶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찌 죽음을 알려하느냐?」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공(子貢)이 「죽은이도 의식이 있습니까?」하고 묻자 「내가 만일 죽은 자도 의식이 있다고 하면 효자된 사람이 조상한테로 가기 위해 자살할까 두렵고 만일 죽은자는 의식이 없다고 하면 불효자가 죽은 조상들을 내버리고 물어주지 않을까 두렵다 사야(賜, 자공의 이름), 이런 문제는 차

라리 결정짓지 않은채 그냥 내버려두자. 네가 죽으면 너 스스로 그때 알게 될 것이니 지금 미리 알고 애쓸 것 없다(論語, 김학주 편저 1992 孔子家語, 孔子集語)」고 함으로써 인간 사후에 대한 확답을 거부하고 조상신의 존재를 부정하였다.

### 4) 자산의 조상숭배

주재용(1995)에 의하면 자산은 일반사람들이 제사때 조상신이 실제로 와서 음식을 먹는다고 믿게 만든 동기자였다. BC 6C경 정(鄭)나라 자산(子産)이 조상숭배를 국정(國政)의 근본방침으로 정하여 제사때 죽은자를 더욱 생생히 기념하고 죽은이의 모습을 그리워하는 후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산사람(生者)에게 귀신역할을 시키는 제사절차를 만들어 시행하였다. 즉 산사람 중에서 죽은자의 역할을 할 시(尸)를 정하여 시(尸)가 제사때 출현하도록 하고 시(尸)를 중심으로 한 제례절차를 만들었다. 이때의 시(尸)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수도 없다는 송장을 의미하는 상형문자이다. BC 9C경 지은 초자(楚茨)의 시(尸)에 대한 내용이 있다(주재용 1995). 「직계친족 중의 한사람을 시(尸)로 정하여 죽은자의 의복, 휘장 등을 입혀 귀신으로 분장시켜 맞아들이고 신좌에 앉힌 후 잡수기를 권하니 시(尸)된 자는 아무말없이 절을 받고 앉아서 음식을 맛보도다」하였다.

이와 같이 시(尸)는 제사의식 전반에 걸쳐 중심인물 노릇을 하였으나 마치 송장처럼 수동적으로 말한마디 할 수 없었으며 차린음식도 배불리 먹는 것이 아니라 약간 맛을 볼뿐이었다. 또한 아무말 못하는 시(尸)를 대신한 공축(工祝)이 제주(祭主)에게 「너와 네 후손에게 만복과 수(壽)를 준다」는 말을 하여 음복(飲福)절차를 대행하였다(주재용 1995). 시(尸)를 세우는 일은 은밀히 추진되었으며 조상 대하듯 정중하고 엄숙하게 영접, 접대, 고별의 절차를 가졌으므로 자산(子産) 이후부터 백성들은 귀신이 실제로 와서 앉아먹고 마시고 즐기며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게 되었다. 이러한 시(尸)의 절차가 간소화된 것이 신주(神主)이며 신주가 간소화된 것이 지방(紙榜)이라고 볼 수 있다.

## 2.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 및 평가

### 1) 유교식 제례의 구성요소

유교식 제례는 영혼불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 육신과 함께 영혼도 소멸되며 일시적으로 영혼이 잔생하다가 결국은 소멸된다고 보고 잔생하는 영혼을 위해 제사가 필요하다고 본 무신론적 유물론이 기본사상이 된다. 이러한 배경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교식 제례에서 효(孝), 제액초복(除厄招福), 정성(精誠), 제례절차(祭禮節次), 제사종류(祭祀種類), 참제범위(參祭範圍), 제사주관자(祭祀主管者)의 요소를 추출하여 이를 유교식 제례의 구성요소로 보고 구성요소 각각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였다. 정성에는 몸과 마음의 정성과 제수 음식에 관한 정성을 포함시켰다.

#### (1) 효사상(孝思想)

조선조(朝鮮朝)는 성리학에 의한 통치를 위하여 백성이 따를 수 있는 효(孝)라는 가부장적 윤리규범을 제정하여 생전·사후의 부모에게 효도하게 함으로써 효의 원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忠)을 실천하게 하였다. 격몽요결, 가례집람, 산림경제 등에 나타난 조선조의 제례의 목적은 효사상이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본반시(報本反始), 추양계효(追養繼孝)의 사상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제례의 효사상은 생전의 부모를 봉양(奉養)함이 미치지 못함을 뉘우치며 부모생전에 바쳐야 할 효를 사후까지 영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제례에 관한 선행연구들(홍연주 1986, 김명나 1989, 김인옥 1997, 박수정 1989)의 제사의 목적도 효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지지해 준다.

따라서 효사상은 제례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계속 살려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가 조상·부모에 대한 당연한 인간의 도리임은 명백한 일이나 효가 지나치게 부모 또는 조상에게만 국한 될 경우 현재와 같은 혈연·지연 등의 연고(緣故)중심의 사회를 이룰 수밖에 없다.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효나 조상숭배 자체가 더 넓은 사회집단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최재석 1976).

오늘날 고아수출국이라는 국가적 오명이나 제부모가 아니면 전혀 관심조차 보이지 않는 봉사정신의 결여도 조상이나 부모의 사후까지도 효도하도록 강

요하여 자손된 자의 일생을 혈연중심의 효사상에만 묶어 둔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간 사후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사후까지 효를 연장시킬 것이 아니라(김명혁 1984) 살아생전의 부모에 대한 효로 한정시키는 사회적 용단(勇斷)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부모 사후에는 부모를 마음속에 담고 기억하며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부모생전에 못다 한 효를 혈연을 초월하여 불우한 노인이나 이웃을 돌보고 사랑하는 인류애로 승화시킴으로써 자손이 배운 선(善)의 영광이 궁극적으로는 부모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 높은 효의 실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2) 제액 초복사상(除厄招福思想)

겉으로 드러난 제례의 목적이 효(孝)라면 우리 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는 제례의 목적은 제액초복이다. 제액초복사상은 조상신을 받들고 모셔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신이 악신령을 몰아내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액땀해 주며(김명혁 1984) 수(壽)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도록 오복(五福)을 내려 준다고 믿는다(김명자 1984, 주재용 1995) 사상이다. 유교에서 이르는 다섯가지 복(福)이란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으로서 모든 인간이 회구(希求)하는 대상이었으며 이러한 복은 오직 제사를 통해서만 획득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요컨대 제례의 잠재된 큰 목적은 조상신을 받들어 많은 복을 받고 자기자손의 번영을 기원하는 산사람(生者) 본위의 공리적(公利的) 종교의식(김명자 1984, 이정우·김연화 1999)이었다. 우암선생 계녀서의 「기제사에 ...하면 자손이 복을 받고 그렇게 아니하면 재화(災禍)가 있을 것이다」, 「제사에 ...하지 않으면 심덕에 해롭고 복이 손상하니」나 격몽요결의 「제사에 ...하지 않으면 하늘을 찌르는 분통함이 일마다 맺히지 않음이 없을 것이고」 등의 내용도 심층적으로는 제례의 목적을 효(孝)보다 제액초복에 두었음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제액초복사상은 중국고대의 원시 영혼관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써 한(恨)을 품고 죽은 사후의 영혼은 원혼귀가 되어 이승을 방황하며 살아있는 인간을 괴롭힌다고 생각하고(김선평 1983) 죽은 영혼을 산사람보다 더 무서워하였던 것라도 상통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후의 영혼은 육체

적인 동작은 없으나 살아있는 인간에게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믿었다(양재연·임동권의 1980). 그러나 이러한 사상은 원죄(原罪)나 내세(來世)를 모르던 고대 중국인들의 원시적 종교관에서 비롯되었으며 조상신을 제액초복의 능력자로 알고 맹신한데서 기인된 결과이다. 영혼은 물질이 아닌 순수한 영적 존재이므로 한번 올라간 이상 움직이거나 이성을 방황하는 것이 아니며 (주재용 1995) 중국의 시, 신남산, 주(詩, 信南山, 註)에서도 복이란 하늘에 매여 있는데 조상이 어찌 그것을 줄 수 있겠는가(福在天…受天之祐)하였고 공자도 하늘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도 빌테가 없다(論語)고 하여 복과 길상(福과 吉祥)이 하늘(天)에 있음을 알게 하였다. 조선조 제례에서 복을 내려준다는 음복절차도 모든 제례에서 행해졌던 것이 아니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음복(飲福)절차는 사시제(四時祭)와 사당에서 지내는 이제(禴祭: 아버지제사)때에만 있었고 기제때는 음복절차가 없었다. 또한 음복을 수조(受胙)라 하여 축관이 주는 잔을 받은 제주가 술을 약간 따라 마시고 축관이 조금씩 떠준 각 신위의 밥을 제주가 받아먹게 하면서 축관이 음복서식을 낭독함으로써 복을 내렸다. 이제(禴祭)의 음복서식 내용을 보면 「아버가 제사신(工祝)에게 명하여 너희에게 많은 복을 있게 하리니 효자들이 하늘의 녹을 받고 전답에 농사하여 오랜 수명 긴 해를 살되, 굶임없이 이어라」이다.

여기서도 「하늘(天)의 녹(祿)을 받고…」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조선조 예학자들도 복재천(福在天) 사상 즉 하늘(天)만이 복을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사례편람에 입각해 볼 때 오늘날 행해지는 기제사에는 복을 내려주는 음복절차가 없으며 다만 제사후 음식을 나누어 먹는 준(餼)의 절차만이 존재할 뿐이다.

따라서 조상신의 제액초복사상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자신에게 최면을 설기 위한 자기만족 내지는 자기합리화에 불과한 것으로서 인생의 불운을 조상 탓으로 돌리는 소극적이고 좁은 시각에서 비롯되었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로부터 노인된 부모에게 집안의 근심사를 알리지 않아 근심을 덜어드리려는 효를 행했음과 같이

사후의 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어 조상의 영혼에게 부담을 주는 비윤리성을 버리고 움직일 수 없는 조상 영혼의 명복을 위해 하늘(天)에 대신 빌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손의 도리라고 생각된다.

### (3) 정성(精誠)

정성은 유교식 제례에서 가장 강하게 요구했던 행동규범이었다. 격몽요결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정성을 기울이는 것을 주로 할 따름이니」라든가 우암선생 계녀서의 「제사는 정성을 다하여…」라든가 사소절의 「슬픈 정성을 다하여」나 또는 성호사설의 「…귀신이…사람의 정성에 감동되는 것이니」등의 내용을 통해 볼 때도 제례에 정성을 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정성에는 몸과 마음으로부터 바치는 정성과 제수음식마련과 관련된 정성이 있었다.

#### ① 몸과 마음의 정성

격몽요결에서 「옛날 법식대로 제수와 그 절차를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제사에 임하는 자손들의 정성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해서는 안되며 안으로는 목욕재계, 재숙(齋宿), 치재(致齋)를 하고 밖으로는 산재(散齋)를 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으며 산림경제에서도 목욕재계와 산재, 치재, 재숙을 몸과 마음의 정성으로 보았다. 특히 우암선생 계녀서에서는 목욕재계를 강조하여 추운 겨울이라도 반드시 목욕을 하고 정성들여 머리를 빗고 손톱, 발톱을 잘라 몸을 단정히 하도록 하였다. 재(齋)는 몸과 마음을 가즈런히 한다는 의미로써 산재는 이를 동안에 걸쳐(격몽요결에서는 시제때 4일 산재를 권하였음) 사랑채에서 자며 조상(弔喪)이나 문병(問病)을 하지 않고 고기나 냄새나는 푸성귀나 마늘을 먹지 않으며 술을 취하도록 마시지 않고 풍류(風流)를 듣지 않으며 흥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었다(격몽요결, 산림경제). 치재는 하루 온종일(격몽요결에서는 시제때 3일 치재를 권하였음) 오로지 제사 모시려고 하는 그 분만을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분이 거처하던 곳, 웃고 말하던 모습, 즐겨하시던 일, 즐겨 드시던 것 등만을 생각하는 것이었다(격몽요결, 산림경제). 재숙은 선참제(先參祭)행동으로서 목욕재계하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야 제사에 참석하도록 한 규범이었다. 그렇게 모든 행동을 다한

뒤에야 제사 때를 당하면 그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그의 음성이 들리는 듯하며 그분이 흠향하는 것 같이 느낀다(산림경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재(齋)의 규범들은 자손이 정성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시킴으로써 자손의 기(氣)가 조상에게 닿도록 하여 제사 동안 조상신이 내방(來訪)하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들은 철저히 성리학에 근거를 둔 것이며 농경사회에서나 지켜질 수 있는 것들이다. 재(齋)들을 현대의 산업사회와 연관시켜 검토해 볼 때 목욕재계는 오늘날 더 편리해지고 용이해졌으므로 정성이라 볼 수도 없거니와 산재는 타인들과 더불어 직장 및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현대인들로서 제사가 닦아온다는 이유만으로 조상(弔喪)이나 문병을 피하거나 음식을 가려먹으며 술자리를 거절하는 등 본인 중심의 생활로만 영위(營爲)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TV, 라디오 등 곳곳에서 들려오는 음악 소리를 차단할 방법이 없다. 치재 역시 분주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하루 온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모든 것만을 생각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불가능하다. 조선조 예서들이 산재(散齋), 치재(致齋), 제숙(齋宿), 목욕재계 등을 강조한 것은 정성을 다하여 정신을 집중시켜 기(氣)를 모으면 조상의 기를 끌어당겨오게 할 수도 있다는 주자의 제사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조 제례에 바쳤던 몸과 마음의 정성은 퇴색되어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사라져버린 허례(虛禮)에 불과한 것이다.

## ② 제수음식마련과 정성

성호사설의 「정성이란 제물의 푸짐한데 있지 않고 정결한데 있는 것인 즉」라든가 사소절의 「한 그릇의 밥이나 나물국을 가지고도 귀신은 죽히 흠향할 수 있으니 제사란 깨끗하게 갖추기를 힘써야 하고…」라든가 우암선생 계녀서의 「제사는 정결하게 하며 조심하는 것이 으뜸이니」등의 내용을 볼 때 조선조 제사는 제수음식 수의 많고 적음보다 음식마련 할 때의 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수음식을 마련할 때는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을 때리거나 종을 꾸짖지 말며 큰소리로 떠들거나 웃지 말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며 티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먼저 먹지 않으며 설혹 어린이가 달라고 보채더

라도 주지 말고 고양이, 개, 벌레, 쥐 등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였다(사소절, 우암선생 계녀서, 산림경제). 이는 돌아가신 분만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청결하고 품위있게 음식을 마련해야 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정성은 우암선생 계녀서의 「음식을 차려 보낼 때도…내집 제사와 같이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면 오늘날의 제수음식 분담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할 규범이다. 제사용 식품자료에 관해서는 사소절에서 「과실, 곡식, 고기, 채소는 제사에 쓸 것을 먼저 마련해 놓은 후 다른데 쓰도록 하여라」고 하여 추수작물 중에서도 제사용을 우선시하여 가장 먼저 품질이 좋은 것을 골라 제수음식 마련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내용들은 오늘날의 제수음식도 비록 직접 추수한 농작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국내산의 좋은 자료를 사용하여 자손된 여성들의 갖은 정성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져야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여성생활이 변화되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현대의 여성들이 이를 지키기는 불가능하다. 여성취업증가로 인하여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역할을 해야 하는 취업주부들은 인스턴트식품 및 각종 편의식품, 외식, 가정부 또는 파출부 등에 의존된 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그 결과 10년 전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제례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다. 즉 도시의 교육수준이 높은 층에서는 제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제수음식분담, 종교단체로의 위탁, 주문차례상, 휴가지에서의 콘도차례상 등이 등장하고 있다(이정우·김연화 1999).

수입농산물이 범람하는 국제화시대에 신토불이(身土不二)만을 알았던 조상에게 국내 농산물만을 선별하여 제수음식을 마련할 수 없다는 사실에 자손들은 제사를 지내고도 죄의식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 시간압박을 받는 여성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갖은 정성으로 제수음식을 만든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수음식마련과 관련된 유교식 제례의 정성 또한 오늘날 지켜질 수 없는 허례라고 생각된다.

## (4) 조상신의 식사

조상신에게 바치는 제물(祭物)로서의 제수(祭需)음



식은 다음과 같았다.

밥(메, 반<飯>, 또는 완반<盥飯>, 국(갱<羹>), 삼탕(三湯; 소·어·육탕), 숙채(熟菜), 동치미(침채<沈菜>), 생김치(저채<菹菜>), 생선회(魚物), 육회(肉物), 포(脯), 간장(청장<淸醬>), 꿀·조청(청밀<淸蜜>), 식혜(혜<醴>), 초무침나물(초채<醃菜>), 국수(면<麵>), 전유어(갈납), 삼적(三炙; 소·어·육적), 떡(병<餅> 또는 편<餠>), 유과(油果, 또는 造果 또는 葉果), 전과(煎果), 차(茶; 물), 술(祭酒; 청주), 과실(조·울·이·시; 棗栗梨柿) 등이었다. 진설(陳設)방법은 제수음식이 많으면 6줄(산림경제), 적으면 4-5줄(격몽요결, 사례편람)로 놓았으며 진설순서는 차게 먹어야 하는 음식을 첫줄로 하고 따끈한 온기에서 먹어야 하는 음식을 끝줄로 놓았으며 술은 신위 바로 앞에 놓았다. 같은 줄에 음식을 놓을 때는 좌포우혜(左脯右醢; 또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어동육서(魚東肉西; 어류는 동쪽, 육류는 서쪽), 두동미서(頭東尾西; 생선의 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홍동백서(紅東白西;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 조울이시(棗栗梨柿; 대추, 밤, 배, 감)의 순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산림경제에서 가례(家家禮)를 비판할 정도로 조선조에도 이 복잡한 진설법을 모르는 가정이 많았으며 더욱이 오늘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주부의 약 30%만이 이 진설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허성미 1987). 또한 음식 종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가정의례준칙에서는 반상차림을 계속 권장하였으나 거의 실천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보통때 먹지 않는 별식 위주로 복잡하게 진설된 이 음식들을 과연 조선조 사람들은 조상신이 실제로 와서 먹는다고 믿었는가의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성호사설에서는 「사후에도 기(氣)가 존재하므로 좋은 음식이 앞에 놓여 있을 경우 그 냄새가 기(氣)에 젖어 냄새에 기빠하고 향기로움을 취하여 흠향만 할뿐이니…」하였고 사소절에서는 「삶고 지지는 음식은 뜨겁게 하여 김을 올려 귀신이 음식 냄새를 충분히 흠향하게 하며…」하였으며 산림경제에서는 「제사는 반드시…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귀신이 흠향할 것인가」고 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조선조 예학자들은 조상신이 음식을 먹는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오직 그 냄새로 향기로움만을

흠향(歠饗; 제물로 받아들임)할 뿐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자손의 기가 조상의 기를 잡아당겨 제사동안 잠시 오도록 할 수도 있다는 주자의 제사관을 따른 것이며 자손들의 기를 집중시키기 위해 자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한 방법으로써 제수음식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제수음식진설을 부정적으로 보았던 조선조 최고의 예학자 사계(沙溪 金長生)의 말에서도 나타난다. 사계는 그의 저서 가례집람(家禮輯覽)에서 「장자 말씀에 옛사람은 기일에 제물을 바치는 예는 하지 않고 상(喪)때와 같은 슬픔을 다하여 평상시와 다름을 보였을 뿐이니라」하였고 그의 제자들과의 문답집인 의례문해(疑禮問解)에서는 「사대부가(家)에서 불교적인 방법으로 경을 외우고 음식을 올리니 비천하고 괴이하며 이런 이치는 없나니…」하였다. 이는 제사때는 상(喪)을 당했을 때와 같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예절이며 제수음식은 부차적인 것으로서 불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암시해 주며 우리의 제례가 본고장 중국보다 더욱 경직성을 보인 것도 유교식과 불교식의 혼용 때문이었음을 알게 한다.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제례에 더 전통적이었으며(임옥재 1981, 홍현주 1986, 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김명나 1989, 손유미 1990, 이정우·김명나 1993) 제사를 반드시 지내야 한다는 의견도 불교가 가장 많고(김명나 1989) 4대봉사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불교가 가장 높았다(박순천 1986)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이를 지지해 준다. 이상의 고찰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사후의 영혼과 살아있는 자손의 기가 통한다고 본 것이나 감각기능이 상실된 영혼이 향기로움을 인지하여 흠향한다고 본 견해는 우주만물의 형성원리를 이기(理氣)로 본 유물론적 성리학 사상의 산물이었으며 제수음식은 직접적으로 제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계친족을 한곳에 모이게 하여 먹게 함으로써 가부장권을 강화시키는 매개물에 불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리학 이론이나 가부장제도가 붕괴된 오늘날 먹지도 흠향할 수도 없는 조상신을 위하여 그 많은 종류의 음식을 만들고 복잡한 방법으로 진설한다는 것은 효율중시의 현대사회에서 시간, 경제, 예

너지 등의 낭비이며 이를 강행하는 것 자체가 허례라고 생각된다.

(5) 신주(神主), 위패(位牌), 지방(紙榜)

유교식 제례의 중심은 신주였다. 신주는 조상신을 의미하였으며 주독(主楮)안에 모셔졌고 주독은 사당에 소장되었다. 신주는 조선조 제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생활까지를 평생 지배하였던 무서운 존재였다.

사례편람에 의하면 신주를 모실 사당(祠堂)은 정침(正寢)의 동쪽에 지어졌으며 사당안은 4개의 감실(龕室; 신주를 모시는 방)을 두어 첫 번째 감실에는 고조(高祖)의 신주를, 두 번째 감실에는 증조(曾祖)의 신주를, 세 번째 감실에는 조(祖)의 신주를, 네 번째 감실에는父의 신주를 모셔 4대봉사를 하였다. 격몽요결, 산림경제에 의하면 제사 시작과 끝에는 주독 뚜껑을 열고 닫았으며 운반할 때는 상자에 모셨다. 위패는 신주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밤나무)였으며 지방은 사당을 상징하기 위해 종이를 집모양 형태로 만든 것으로서 신주가 간소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격몽요결의 「기제사때는 지방을 써 붙이고 지내지 말고 반드시 신주에게 지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조선조에서도 간소화된 지방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주의 유래는 BC 6C경 중국 고대의 자산(子産)이후 죽은 이의 역할을 하는 시(尸)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다가 시(尸)의 출현을 신주로 간소화 시킨 데에 있으며 이러한 중국 고대의 습속이 주자가례에 그대로 수용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尸)자체가 생자(生者)를 사자(死者)로 위장시킨 것이었고 시(尸)가 신주로, 신주가 위패나 지방으로 간소화된 것으로써 오늘날 제례에서의 지방 사용은 종이 그 자체 이외에는 아무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또한 사후의 영혼에는 내세 혹은 영혼의 세계가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상신의 영혼을 주독에 담아 가두어 둘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무령무각(無靈無覺)한 하나의 물체 집합체인 이·기(理氣)를 우주만물의 중국원리로 본 무신론적 일원론인 주자학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생전의 봉호나 관직 등 조상마다 내용을 달리하여 한문으로 복잡하게 표기한 지방은 조선조 벼슬한 조상을

타족에게 자랑하기 위한 한 방법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전혀 사후의 부모를 기억하는 효와는 무관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선조에서 신주, 위패, 지방을 반드시 사용하려 했음은 시(尸)를 세워 제사를 지냈던 자산(子産)이후 중국사람들의 믿음 즉 귀신이 실제로 와서 앉아 먹고 마시고 자손들에게 복을 준다고 믿었던 그 의식을 그대로 수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제례에서 신주, 위패, 지방을 사용하는 허례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6) 제례절차

유교식 제례절차는 조상신을 초대하여 모시고 음식을 대접한 후 모셔다 드린다는 가정하에 구성된 절차들으로써 근엄과 신비감을 고취하기 위해 그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시제(時祭)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던 조선조 시제의 절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격몽요결, 사례편람).

참신례(參神禮)－강신례(降神禮)－진찬(進饌)－초헌(初獻)；축독(祝讀)－아헌(亞獻)－종헌(終獻)－유식(侑食)；첨작례(添酌禮)；삽시정저(插匙正箸)－함문(闔門)－계문(啓門)；하시저(下匙箸)；헌다(獻茶)－음복(飲福)；음복사식(飲福辭式)－사신(辭神)－분축(焚祝)－납주(納主)－철상(撤床)－준(餽)접대 등이다.

참신례는 제사행례를 하기 위하여 제주(祭主)이하 모든 참제인(參祭人)이 신위에게 재배하는 예(禮)이며 강신례는 조상신을 내려 모시는 예로서 술을 따라 모사(茅沙)；그릇에 모래를 담고 대풀을 묶어 꽃아 놓은 그릇)에 부어 신이 땅(모사)에 내려 왔음을 상징하였다(신주를 모신 제사에서는 참신을, 지방을 사용하는 제사에서는 강신을 첫순서로 하였다). 진찬은 음식을 진설하는 예이고 초헌은 첫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축독은 효손 00이 식사를 올리오니 흠향하시라는 내용의 서식을 낭독하는 예이다.

아헌은 두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로써 여자가 하였으나(격몽요결, 사례편람) 중기이후에는 백부나 숙부 또는 장형제가 하였다(산림경제). 종헌은 세 번째 술잔을 올리는 예이며 유식은 음식 드시기를 권하는 예로서 제주가 신위앞에 꿇어 앉아 종헌잔을 채우는 첨작례를 하고 밥에 숟가락을 꽂고 젓가락을 나란히

놓는 삼시정저를 하는 것이다. 합문은 조상신이 음식 드시는 동안 문밖으로 몰려나 기다리는 예이고 계문은 조상신의 식사가 끝날 무렵 다시 정침이 있는 곳에 들어오는 예로서 손가락과 젓가락을 내려놓는 하시저와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리는 헌다를 하는 것이다. 음복은 축관이 음복사식을 읽음으로써 복을 내려주는 예이고 사신은 조상신에게 제사가 끝났다는 의미의 고별인사를 드리는 재배이며 분축은 축의 축문을 붙에 태우는 예였으나 후에 축독 절차가 생략되고 부더는 종이신주(지방)를 불사르는 의식이 되었다. 납주는 주독의 뚜껑을 닫고 상자에 담아 사당으로 신주를 다시 모셔가는 예이다. 철상은 진설했던 제수음식을 제기에서 다른 그릇으로 옮겨 담아 제기를 비우며 제삿상을 치우는 절차이고 준 접대는 남은 음식을 나누어 먹는 절차였다. 기제의 절차는 시제와 유사하였으나 음복의 절차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와 같이 유교식 제례절차는 조상신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감실로 모신다는 철저한 각본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신주, 술,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다. 즉 제사에서 신주, 위패, 지방, 제수 음식, 술등이 생략되면 자연히 소멸될 행동순서들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신주의 허구성(虛構性)과 영혼식사의 불가성을 밝혔다. 따라서 신주, 제수음식과 관련된 현행 제례의 모든 절차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 (7) 기타

##### ① 제사종류와 시간

사례편람에서는 제사종류도 사시제(四時祭), 이제(禰祭), 기제(忌祭), 묘제(墓祭)를 들었고 격몽요결에서는 여기에 속절제(俗節祭), 상중제(喪中祭)를 첨가하였으며 산림경제에서는 다시 여기에 삭일제(朔日祭; 매달 초하루), 망일제(望日祭; 매달 보름), 사명절제(四名節祭; 정초, 한식, 단오, 추석)를 첨가하여 제사종류가 조선후기에는 더욱 세분화되었다. 제사의 종류 중 시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기제는 자손이 모여 추모의 정을 조금 퍼는 제사에 불과하다(산림경제)고 하여 기제를 반드시 지내야 된다고 생

각하는 현재와 큰 차이가 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부분의 제사 종류가 생략되었으며 이미 오래 전부터 제사를 지내는 가정에서는 기제와 다례만을 지내고 있다(이길표 1982). 최근의 건전가정의례준칙(1999년 8월 9일 시행)에는 기제, 절사(節祀), 연시제(年時祭)가 권장되고 있다. 음력설의 연시제는 사명절제의 의미가 이미 사라지고 다례의 형식으로 행해되고 있어 억지로 그 행사들을 유지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추석때의 절사 또한 농경시대에 성행된 하나의 관습을 이미 사회체제가 변해버린 후기 산업사회로까지 이어가기에는 민족 대이동에 따른 국가적, 개인적 낭비가 지나치게 큰 비생산적인 행례이다.

기제의 시간은 건전가정의례준칙에 사망 당일로만 표기되어 있어 이미 가족합의에 따라 조정된 시간(김상혁 1989)이나 사망일 오후저녁(홍남석 1992), 또는 사망 전날저녁(박수정 1989, 김인옥 1997)에 행해짐으로써 다소 생자의 편리성이 추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사날짜가 사망한 날이나 전날이어야 한다거나 시간이 저녁 또는 밤중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시간제약이 심한 현대의 시간관념상 매우 비효율적이다. 특히 전등의 발달로 인하여 밤과 낮의 구별이 모호해진 현대에 있어 귀신의 밤중 내방만을 주장하는 것은 이미 의미가 없어졌으므로 제사 날짜와 시간에 대한 대폭적인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② 봉사 및 참제범위

십여년 전만 해도 봉사범위는 4대봉사였으나(홍헌주 1986) 그후 3대봉사로(박수정 1989) 감소하였고 오늘날은 2대봉사(김인옥 1997)가 되었으며 최근의 건전가정의례준칙에서도 2대봉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제사에 참석할 의무가 있는 친족도 동고조팔촌(同高祖八寸)에서 4촌 이내(이길표 1982)가 되었고 근래에는 형제까지로 줄어들어(김인옥 1997) 참제범위가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층으로 갈수록 참제 기피현상은 더욱 심하다(문옥표 1998). 이미 경기도 파주군 농가대상의 조사(이기형 1982)에서는 직업을 가진 자녀나 친척이 다 모이지 않고 몇 어른들만으로 제사의식이 거행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생존경쟁과 시간제약이 심하여 살기에 더욱 급급해질

후대에 가서는 엄격하고 시간을 길게 필요로 하는 의식은 지속되기 힘들므로 아예 제사가 소멸되어 버릴 위험도 있다. 따라서 후대의 생활에 맞는 봉사 및 참제범위가 만들어져야 한다. 봉사범위는 부모1대로만, 참제의무는 고인의 자녀로만 한정시키고 봉사기간에 대해서는 제사를 지내는 자녀된 자가 영육이 건강하고 능력이 있을 때까지로만 한정하거나 건강하더라도 뇌쇠하여 며느리에게 제사의 짐을 넘기지 않을 수 있는 연령 즉 70세정도 까지로만 한정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③ 제사주관자

아직까지도 제사주관자는 장남인 경우가 가장 많으며(박순천 1986, 박수정 1989, 김인옥 1997) 외아들이 주관하는 경우는 4.4%에 불과하다(김인옥 1997). 그러나 계획출산으로 인하여 외아들, 외딸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제사주관자에 대한 새로운 규범이 요구된다. 외아들인 경우는 부모와 처가부모를, 외딸인 경우는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제사를 봉사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제사주관자도 형제자매가 동등하게 윤회 주관하여 다같이 자식된 도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선조 예학자 사계(沙溪)의 가례집담(家禮輯覽)에서도 「우리 풍속에서 기제는 아들, 딸 구별없이 번갈아 지내는데... 이와 같은 제사는 행할 수 없나니」하는 내용으로 보아 자녀의 윤회제사는 생소한 형식이 아니고 조선조에도 이미 성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16-17C까지도 윤회(輪廻)와 장자봉사가 공존하였으나 예학(禮學)이 전성기를 맞아 가가례(家家禮)에 따른 규범이 억제되면서 장자봉사로 고정되었다.

### ④ 제례의 기능

제례의 기능은 친척 화목, 자녀의 교육, 회연(會宴)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길표 1982, 홍현주 1986, 김인옥 1997). 그러나 근래에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 친족이 숙박하는 일은 거의 없으며(이유미 1991) 퇴근시 잠시 제사주관자의 가정에 들러 제사를 지내고 다음날의 출근준비를 위하여 일찍 돌아가는 추세이므로 친목도모나 자녀의 교육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어렵게 제수준비를 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제사가 잠시동안으로 끝나기 때문에 제사

주관 가정에서는 허탈감 내지는 제사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쉽고 제수음식 마련과 뒤처리 등으로 인한 가사노동부담과 일상식과는 다른 제수음식준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무시할 수 없다. 제사의 의미를 형제자매가 모여 부모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라고 볼 때 제사를 반드시 가정 안의 행례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혼례를 교회나 예식장에서 행하고 결혼피로연을 가정밖에서 행하며 장례를 가정밖 영안실에서 행하는 것과 같이 제사도 가정밖에서 행할 수 있어야 한다. 형제자매가 조출한 음식점에 모여 간단한 제례행례를 한 후 회연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으며 절, 교회, 성당 등 종교기관에 제사를 위임하고 함께 참석하여 의의를 새겨 볼 수도 있다. 제사 날짜와 시간도 사망한 날이나 사망전날 저녁으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망날 전후를 기준으로 가까운 공휴일을 정하여 행하거나 낮에도 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러한 융통성이 제례에 고려될 때 기존의 제례기능을 능가하는 형제자매간의 친목 또는 자녀의 교육에 대한 새로운 제례의 기능이 형성될 것이며 사후 부모에 대한 효가 단절됨이 없이 오래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여성과 남성의 제사관

예로부터 제례행례의 실질적 주관자는 여성이었다. 조선조 여성들은 출가전에 제사지내는 법을 배워서 출가 후에는 조상의 제사를 만드는 일을 중요한 의무로 생각하였고 종가에서는 일년에 4대봉사와 불천지위(不遷之位)를 합하여 12회 이상의 제사(이광규 1984)와 속절제, 삭일제, 망일제 등 종부(宗婦)인 여성은 일년내내 제사에 구속된 삶을 살았다. 이와 같이 여성이 아니면 유교식 제사가 존재해 올 수 없었을 정도로 제사의 모든 준비와 뒷정리 등이 여성의 몫이었으나 조선조 후기부터는 여성에게는 아헌은 물론 제수진설과 참제마저 거부되었다. 근래의 유교식 제례에서도 며느리의 재배는 겨우 3%에 불과하여(이유미 1990) 여성 불참제의 원칙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여 남녀 평등사회로 전환되면서 여성의 의사도 존중되었고 느린 속도이긴 하나

유교식 제례의 상당부분이 간소화되면서 현대의 여성들은 조선조 여성보다는 훨씬 인간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신자(信者)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신자수가 전체 인구의 약1/3(1500만명)인 그리스도교의 확대는 여성을 제사의 뒷면에서 정면으로 출현시키는 계기가 되어 이제는 여성이 추도식에서 집례자나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 미래의 여성은 현재의 여권 신장을 기초로 더욱 그 권한이 증가될 전망이다. 예컨대 성비(性比) 불균형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회소가치와 결혼회피 또는 혼전동거의 젊은층의 시도(경향신문 1999년 12월 16일) 및 여성 학력수준의 지속적인 상승은 그러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여성 학력이 높은 주부일수록 유교식 제례의 탈피욕구가 강하여(임옥재 1981, 이유미 1990, 이정우·김명나 1990) 학력이 높은 미래의 여성들은 유교식 제례를 개혁하는 주도세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남성들의 제사관은 여성과는 달리 제례의 현상유지를 은근히 바라는 수구성(守舊性)이 강하다. 조선조 남성들은 가부장권 중 제사권을 제일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시하였고 제사권 이양시는 가장권의 계승이나 재산 상속이 동반되었다(이광규1977). 유교식 제례는 남성들에게 목욕재계, 산재, 치재 등의 몸과 마음의 정성을 요구하긴 하였으나 제례행례의 필요한 모든일을 여성이 맡아 하였으므로 제관이 된 남성들은 엄격하고 신비로운 절차로 제사를 지내고 복을 받으며 제사후에는 낮익은 부계친과의 회연의 자리를 마련하여 남성됨을 과시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행례였다. 즉 제사는 농민이 오래간만에 풍부하고 양질의 고급 음식을 먹으며 풍요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날이었다(박종렬 1976, 이현숙 1983). 그 결과 남성들은 제사로 인해 부계 친척단결과 가부장권 강화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질 수 있었다. 근래의 남성들은 대부분 가계의 수입원으로서 직장에 전념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귀가하므로써 가장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다(이광규 1984). 그 결과 근래 남성들의 가장권은 크게 약화되었으며 상승되어가는 여권에 비례하여 남성들은 위축감마저 느끼게 되었다. 경제적 능력이 높거나 고학력 남성들은 자연히 가부장권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되어 남성 심층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가부장권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전통 만들기의 한 양상으로 일부 양반가문에서 제례를 더욱 정교하게 부활시키고 있으며(Kim 1992, 문옥표 1998) 남편의 학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더 전통적이었다(이정우·김명나 1993)는 보고 등이 이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남성들은 가부장권의 자취가 배어있는 유교식 제례의 변화나 개혁에 별 관심이 없으며 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이 아직도 남성주도인 사회에서 관혼상제 중 제례의 현대화가 가장 지체되어 있다는 현실이 남성들의 제례현상 유지 내지는 복고의사를 나타낸다. 따라서 남성들의 제사 개혁관은 소극적 또는 수구적이며 여성들의 제사 개혁관은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 3)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제례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유교식 제례에 관한 고찰 및 검토를 하였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므로 유교외에 많은 종교가 존재하여 서로 상이한 제례를 주장함으로써 제례문화의 파벌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후손들에게 더욱 혼란을 야기시킬 뿐이며 제사의 본뜻마저도 외면하게 할 수도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제례 모델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신자수의 순(불교 2000만명, 그리스도교 1500만명)으로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제례를 고찰 검토하였다.

#### (1) 불교

불교의 제례는 기제사, 일반제사, 우란분재(음력 7월 15일), 위령제, 수륙제 등이 있으며 제례의식은 부처님 위신으로 영가에게 지혜와 자비를 주어 미혹을 풀어 버림으로써 보리도를 이루도록 하는 영혼불멸의 윤회(輪回)를 믿는다(김근수 1998). 현대불자가례(1998)와 가례보전(1999)에 나타난 불교식 제례는 다음과 같다.

#### ① 제례의 준비

제사의 준비물은 제구(향안, 향로, 향합, 촛대와 각종제기)와 제찬, 지방, 축문 등이며 강신례는 없으므로 모사는 준비하지 않는다. 제수음식은 술과 고기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사용하며 신위는 지방, 영정

또는 사진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 위패를 사용한다.

## ② 제례절차

### \* 입정(入定)

준비를 끝내고 꿇어앉아 제사를 시작한다.

### \* 십념(十念)봉독

### \* 봉향찬(奉香讚)

향을 사르며 봉향찬을 낭독함

### \* 정례(頂禮)

부처님께 삼배 올리고 영가를 청하는 절차

### \*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摩訶般若波密多心經)봉독

### \* 헌다(獻茶)

차잔을 올리고 매뚜경을 열어 음식을 권하는 공양의식을 하며 헌다게 낭독함

### \* 권공소(勸供疎)낭독

### \* 축원(祝願) 및 염불(念佛)

### \* 장엄염불독경(莊嚴念佛)

### \* 무량수 불설왕생정도주(無量壽 佛說往生淨土呪) 낭독

### \* 봉송(奉送) 및 철상(撤床)

봉송은 하직인사로서 유교식의 사신과 같다. 우리말 무상계를 하며 밖으로 나가 위패를 불에 사른다.

### \* 보회향 진언(普回向 眞言)낭독 등이다.

이와 같이 불교식 제례는 신위로써 지방, 위패를 사용하여 조상신을 모시고 제수음식을 바치며 하직 인사 등의 절차가 언어의 표기만 다를 뿐 유교식 제례와 그 골격이 유사하고 제례절차에서 신비감을 크게 가미시킨 면도 동일하다. 이로써 불교식 제례는 앞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유교식 제례와 밀착되어 왔음이 입증되며 따라서 현대생활에 맞는 간소화된 의식으로 개변(改變)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 (2) 기독교

성서는 죽은자가 아니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조상이 아니라 조상의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친다(행 4:13, 24:14). 이교적인 것 다른 종교에서 유래된 종교의식 및 우상숭배를 금하며 효도는 살아 계신 부모님께 바치는 것으로 족하고 제사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하며 영혼불멸을 믿는다. 경동교회 가정의례연구회(1995)발행 기독교인의 가정의례지침에 나타난 추모제는 다음과 같다.

## ① 추모제 준비

\* 조상 추모의례를 제사라 하지 않고 추모제라 부른다.

\* 기일이 가까워 오면 가족들은 고인을 생각하고 마음 준비를 하며 추모제 당일날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근신하는 자세로 기일을 맞는다.

\* 고인의 가신 날, 가족들은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인다. 추모제를 지낼 장소에 고인의 사진, 촛대 두개, 향로, 꽃병 등을 탁자나 상위에 올려 놓는다. 십자가를 고인의 사진보다 높은 위치에 걸어 놓거나 사진 곁에 세워 놓는다. 향로나 촛대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 고인의 사진이 없는 경우나 사진을 모시는 경우라도 다음과 같이 한지에 써서 사진 위쪽에 붙여 놓는다. 「아버지 000님(또는 교회에서 맡았던 직분) 제 0주기 추모제」(성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위 성구 대신 고인이나 가족이 좋아하는 짧은 성구를 써 놓을 수도 있다.

\* 추모제 장소 준비가 끝나면 온가족이 사진을 향하여 둘러앉고 추모제 인도자는 사진 오른쪽에 위치한다. 촛불을 켜고 추모제를 시작한다.

## ② 추모제 절차

### \* 묵상과 개회기도

온가정은 고인을 추모하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묵상기도 한다. 추모제 인도자는 조용한 목소리로 다음 성구 중 한 성구를 택하여 낭독하는 동안 가족들은 묵상기도 한다. (시편 23편 또는 시편 121:1-8)

개회기도를 드린다.

### \* 사도신경고백

### \* 향과 재배

가족 대표자가 향을 피우고 모두 함께 재배하거나 영정을 바라보며 고인을 생각한다.

### \* 찬송

찬송가(429, 431, 349, 543, 535장)중 한곡을 골

라 부른다.

- \* 성경 봉독과 말씀의 뜻 새김  
신구약 성경을 미리 정하여 놓고 인도자 또는 가족식구 중 한사람이 봉독한다.
- \* 대표기도  
참석자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한다.
- \* 찬송부름
- \* 고인에 대한 추모말씀(생략할 수도 있다)
- \* 성령 안에서 고인과 영적 교통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성도의 교통을 믿으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고인과의 영적대화를 마음 속으로 약 1분동안 갖는다.
- \* 주님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을 한 목소리로 드린다.
- \* 축도 : 목회자가 참석하였을 때 축도한다.
- \* 추모제 마침과 음식나눔  
음식은 제수음식으로 바치는 것이 아니며 참석자간에 나누는데 활용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 추모제는 위패, 지방 제수음식을 생략함으로써 제례 간소화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추모제의 명칭, 제수음식 배제 등만이 다를 뿐 철저히 유교적 제례를 모방하여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교식 제례의 산재, 치재를 살리려 하였고 조상신이 꽃향기를 흠향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사용함으로써 제수음식은 사용해서는 안되는 제물이고 꽃은 사용가능하다는 모순을 보였으며 고인의 사진 위쪽에 생전의 교회직분이나 성구를 쓰게함으로써 유교식 제례의 지방을 모방케 하였고 타종교인이 소외감으로 추모식에 참석할 수 없을 정도로 종파성을 강조(성경봉독, 찬송, 목회자 참석)하고 있으며 신비감을 가미하기 위한 절차의 형식과 복잡성도 유교식 제례와 유사하다. 따라서 기독교 추모제는 현대 또는 미래의 일반인의 정서에 부합되는 단순히 부모님을 기억하며 회상할 수 있는 의식수준으로는 아직 개변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 천주교

천주교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조상제사를 모실 수 있게 하여 우리나라의 유교식 제사를 허용하고 있

다. 그러나 제사의식에 미신적인 요소는 배제하며 위패나 지방 또는 혼을 모시러 밖에 나간다거나 또는 귀신이 와서 밥을 먹는다든 생각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다(박도식신부 1998). 천주교는 200여년 전 제사거부로 만명의 순교자를 냈으나 후에는 종교의 토착화를 모색한다는 취지아래 지금까지 유교식 제례를 미풍양속으로 간주하여 허용하고 있다. 영혼불멸을 믿는 천주교는 미사를 통하여 하느님께 바치는 제사를 드리고 있으며 영혼의 천국 안착을 위해 연도(煉禱)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중앙협의회(1989) 최기복신부의 추도식안은 다음과 같다.

#### ① 추도식 준비

- \* 마음의 준비로서 고해성사를 받고 마음을 깨끗이 하며 돌아가신 고인을 생각한다.
- \* 몸의 준비로 목욕재계하고 몸가짐을 바르게 하며 최고의 품위와 예모를 갖추 수 있는 복장을 착용한다.
- \* 집안팎을 깨끗이 청소하고 특히 제사드릴 곳을 잘 정돈하고 꾸민다. 벽에는 십자가를 모시고 그 아래에 고인의 사진을 모시고 제상에는 촛불과 향을 놓는다. 정성껏 준비한 제수음식을 진설할 수 있고 꽃으로 꾸밀 수도 있다.

#### ② 추도식 절차

- \* 개식해설  
추도예식의 취지설명과 함께 개회를 알린다.
- \* 성호경과 성가  
성가를 부르는 동안 고인의 영정을 내 모실 수 있다.
- \* 분향제례  
참석자를 대표하여 제주가 분향한다.
- \* 시작기도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드린다.
- \* 시편송도  
시편(27:1-11, 13:1-4, 또는 103:1-5, 13-22)을 송도한다.
- \* 성경봉독  
집회서(3:1-16, 요한복음 15:1-17, 요한1서 3:14-18, 에페소서 5:5-20) 등을 읽는다.

## \* 주례자의 말씀

예식주례자가 봉독한 성경말씀을 바탕으로 제사의 의미, 선조의 유언, 가훈 등에 대하여 되새긴다.

## \* 신앙고백

## \* 신자들의 기도

신자들의 기도는 자유롭게 바칠 수 있으며 기도문으로 대신 드릴 수 있다.

## \* 분향과 배례

술, 과일, 음식, 꽃 등을 봉헌할 수도 있다. 참제자가 많을 경우에는 대표자 몇 명만 할 수도 있다.

## \* 독축

## \* 묵념

침묵 중에 고인께 감사드리면서 잘못에 용서를 구하며 새로운 삶의 결의를 다진다. 아울러 필요한 은혜를 선조께 고하여 전구를 청한다.

## \* 화해와 사랑의 인사

## \* 주의 기도와 영광송

## \* 작별고함

## \* 마침송가

마침송가를 부르는 동안 영정을 본래 위치로 모셔갈 수 있다.

## \* 음복

사랑과 일치의 잔치로서 선조와의 통교, 가족간의 일치를 더욱 돈독하게 한다.

이와 같이 천주교에서는 영혼을 위한 연도와 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육신의 소멸과 함께 영혼도 소멸(영혼은 잔생을 더 누리다가 서서히 소멸된다고 봄)된다고 믿는 무신론적인 유교식 제례를 수용하는 모순을 나타내고 있다. 유교식 제례의식이 불교신자 다음으로 천주교 신자가 높다는 보고(이정우·김명나 1993)는 유교식 제례의 현대화로의 개편을 천주교가 지체시켜왔음을 입증한다.

천주교에서 위패나 지방사용은 미신으로 보면서도 조상신이 먹거나 흠향할 수도 없는 제수음식과 꽃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미신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교리상의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종교의 토착화를 위하여 유교식 제례를 전통과 미풍양속으로 보고 수용하였다고 하나 우리나라 지식인들에게 천주실의가

읽혀진 역사적 시기는 지봉 이수광(1563-1628)의 <芝峯類說>이나 어유당 유몽인(1559-1623)의 <於于野談>에 그 독후감이나 논평이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17세기 초 부터입이 분명하며(김경래 1996) 유교식 제례가 일반화된 것은 사례판람이 간행된 현종 10년(1844)이후 즉 19C중엽이므로 천주학문의 도입이 오히려 유교식 제례의 일반화보다 더 빨랐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유교식 제례는 분명 전통이 아니다. 또한 유교식제례를 미풍양속이라 하나 우리나라 인구의 반이 되는 여성생활을 장구한 세월을 걸쳐 속박하고 희생시켜 왔다는 점에서 미풍양속이라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상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제례를 모두 살펴보았다.

종교마다 각기 다른 제례방법과 제례절차를 제시해 놓고 있으나 신비감 고취를 위해 복잡하고 형식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유사하다. 유교식 제례가 비판되는 것은 유교라는 종파 때문이 아니라 허례와 복잡성 때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각 종교에서는 타종교까지도 수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수행 용이하며 종파를 초월 현대화된 제례방법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각 종교마다 자기방법만을 고집할 뿐 제례를 간소화시키거나 현대화시키려는 개편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제례에 수구적인 남성들이 주도세력인 때문으로 보인다.

## 4) 중국과 일본의 제례 간소화

우리나라 건전 가정의례준칙(1999)에서 다루고 있는 제사가 기제, 절사(추석), 연시제(음력설)이므로 이러한 개념과 같거나 유사한 제례행례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의 제례현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 (1) 중국

## ① 음력설

음력설을 예전에는 원단(元旦), 원일(元日), 원신(元辰), 서일(曜日)이라 불렀으나 근대에는 주로 춘절(春節)이라 부른다. 원(元)은 맨처음과 시작이라는 의미이며 단(旦)은 아침을 뜻하므로 원단은 일년중 맨처음 맞이하는 아침이라는 뜻이다. 원단을 춘절로 개명한 것



은 손문(孫文)이 이끈 신해혁명이었으며 1912년 1월1일을 민국(民國)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도였다.

춘절은 중국 민간의 전통 명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로서 춘절에는 휴일이 길므로(3-5일) 중국 산업화 이후로는 타지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민족 대이동을 한다. 그러나 춘절에 제사는 지내지 않으며 송구영신의 여러 가지 놀이를 즐기며 배년제(拜年祭)를 할뿐이다(홍재룡 1984). 즐기는 놀이로는 폭죽터뜨리기, 세배, 사자춤, 용등놀이, 높은 나무다리타기, 시내구경, 얼음등불 감상 등 다양하다(劉大申 卞紅 박현규 역 1998).

### ② 추석(仲秋節)

한 가족이 모이는 날로써 월병을 먹고 달을 보고 절하며 달구경하고 풍작을 경축하여 밝은 달을 감상하는 것을 인생의 큰 즐거움으로 여긴다(劉大申 卞紅 박현규 역 1998).

중추절의 기원은 고대 달과 토지신에 대해 제사 지냈던 것이 기원이 되어 예전에는 중추절 밤에 달을 보고 절하며 월병, 과일 등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으나 현재는 월제(月祭)라 하여 제사는 지내지 않고 한가위 달을 보고 조상의 덕을 되새길 뿐이다(홍재룡 1984). 추석은 전국적인 명절이지만 이미 각 가정의 활동으로 축소되어 각 가정이 풍작을 경축하는 의미에서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달을 감상하며 조상숭배 의식은 하지 않고 휴일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陶立璠 김종식 역 1997).

### ③ 기제사

중국지역과 민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제 때는 묘지에 가서 꽃을 놓고 묵념하거나 큰절을 3번 올린다. 다만 자유중국에서는 기제를 지내지 않으나 제사시간이 심야가 아니고 주야간 어느때나 자손들이 편리한 시간에 지낸다. 과일도 조율이시가 아니라 망인이 좋아하던 과일을 사용한다(홍재룡, 1984).

중국의 제사나 명절민속은 오랜 습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발전, 지역, 민족 생산방식의 차이에 따라 그 내용과 형식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다(陶立璠 김종식 역 1997).

### (2) 일본

知藏(2000년 1월 1일)과 日本を知る事典(1989)에 의

하면 일본 제례의 간소화는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있다.

#### ① 中陰

죽은 자의 영혼이 극락정도에 가도록 하기 위해 연고자가 공양하는 제례였으며 공양은 사망일(지방에 따라서는 사망전일)부터 계산하여 7, 27, 37, 47, 57, 67, 77일째 되는 날 행해져 왔으나 요즈음에는 7일의 法要와 57일, 77일 중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도합 두 번만 행하며 절에서 행하는 경우가 많다. 100일째 되는 날 공양하는 경우는 연고자가 없는 영혼들을 위한 공양도 병행해서 치루어 진다.

#### ② 祥月命日

사망한 날을 매월 기념하여 고인이 좋아했던 것(밥 또는 기호품)을 차려놓고 공양하였으나 현대사회에 와서는 거의 생략되었다.

#### ③ 年忌法要

고인이 된 다음해의 1주기 때와 3주기 때의 제례행례와 그후 7, 13, 17, 23, 27, 33, 37, 50주기 때에 집 또는 절에서 행하는 제례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13주기의 제례로 대부분 종결하며 이때는 불단의 위패를 절에 바치고 선조의 범요로써 연고 자손의 참석없이도 절 주관으로 행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年忌法要가 대폭 간소화되어 고인이 된 3주기와 7주기에 절에 가서 꽃을 놓고 묵념만 할 정도로 생략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年忌法要是 처음부터 우리나라 기제와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기제란 3년상이 끝난 뒤에 해마다 죽은 날에 지내는 제사(동아새국어사전 1996)였으나 일본에서는 홀수년 주기에만 행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3년상 동안 매일 제례를 행했으나 일본에서는 100일 동안에 홀수가 되는 날을 선택하여 7-8번정도, 그후는 매달 한번, 만 2년 뒤부터는 홀수년 주기에만 8번정도 행하였고 공양음식도 간단한 음식(공기에 밥 한스푼 정도만 담음)으로도 가능하였던 것이다.

#### ④ 연시제

명치유신 이후 일본은 양력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음력설은 아무런 제례행례가 없다. 그 대신 양력 1월 1일은 새해의 첫날이라 하여 제례행례는 없고 생자들을 위한 갖가지 행사가 열린다. 대문에는 부정을 막는다는 의미에서 소나무 혹은 장식꽃들을 꽂고

은가족이 모여 떡국과 술을 나누어 먹으며 전통놀이인 팽이돌리기, 연날리기 등을 즐긴다. 사원을 방문하여 새해의 행운을 기원하는 사람들도 있다.

#### ⑤ 彼岸

3월의 춘분, 9월의 추분을 주니찌(中日)이라 하여 그 전후 3일씩을 합하여 일주일간을 히강(彼岸)기간이라 정하고 조상숭배를 하였다. 彼岸은 극락정도, 진실된 이상의 고향, 즉 깨달음의 세계를 의미하였으며 彼岸이 시작되면 불단을 청소하고 새물과 꽃, 고인의 기호품, 계절과일(주로 사과), 경단 등을 불단에 차렸다. 또한 中日 전후에는 묘지를 참배하여 고인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현대에는 주택구조가 소형아파트로 변하면서 불단 공양이 사라지고 中日에는 꽃한송이 놓고 묵념하는 단순한 묘지참배만이 행해질 뿐이다. 이와 같이 일본에는 음력 8월 15일에 행하는 추석행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제례는 중국이나 일본의 제례보다 처음부터 훨씬 경직되어 있었으며 현대에도 간소화의 필연적 과정을 기피한 채 여전히 과거 지향적 행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제례 재구성 연구

본 연구에서는 제례 재구성 모델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토대로 한 제례 재구성의 기본원칙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제례 재구성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였고 모델에는 모델 I 과 모델 II 를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맞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례 재구성 모델 I 과 II 의 차이는 모델 I 을 모델 II 보다 기존제례의 수용정도를 높게 구성함으로써 우리나라 현행제례가 단계적으로 간소화되기를 기대하였다.

#### 1. 제례 재구성의 기본원칙

##### (1) 기계, 연시제, 절사의 상차림 및 제례절차

1) 현대의 일상생활은 조선조의 여행중 이상으로

복잡하고 분주한 생활임을 고려하여 조선조 최고의 예학자 사계(沙溪)의 「여행중이라도 탁자를 마련하고 향을 피워도 의리에 큰 지장이 없으니 행해도 해롭지 않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례상차림을 재구성한다.

2) 사후의 영혼은 음식이나 술을 먹고 마시거나 꽃의 향기를 흡향할 수 없다는 근거에 준하여 제례상차림에서 제수음식, 술 꽃 등의 진설을 모두 생략한다.

3) 신주, 위패, 지방은 조상신의 실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제례절차는 조상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감실로 모신다는 전제하에 구성된 것이므로 신주(위패 또는 지방), 제수음식, 술 등이 생략되면 자연스럽게 생략될 절차이다.

#### (2) 효사상

1) 효에 관한 조상들의 핵심사상과 「조상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은 필요하다」고 한 조사연구(박순천 1986, 김경재 1996)의 기본이념을 수용하여 제례가 항상 부모를 기억하고 회상하며 감사하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2) 효는 부모 생전까지로만 한정하고 참제의 범위 또한 고인의 자녀까지로 한정한다.

3) 불참제 자녀의 경우 혼자서도 쉽게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고인의 자녀가 불효자녀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한다.

#### (3) 제례장소

1) 제례가 가정안의 행례로 계속 한정될 경우 가정생활에 많은 문제점과 부담이 수반됨을 고려하여 제례를 혼례, 상례와 마찬가지로 가정밖의 장소에서도 행례할 수 있도록 한다.

#### (4) 인간에 실친 기회

제례가 혈연, 지연에 지나치게 집착 구속되어 온 가부장제의 산물임을 고려하여 이를 초월한 차원 높은 인간애의 실천기회가 되도록 한다.

인간에 실친 방안;

1) 부모 기제시 참제의무가 있는 고인의 자녀들은 사후 부모님을 위한 불우이웃 돕기의 선행(가족집단별 또는 개인별)을 자신의 처지에 맞게 선택하여 행하도록 한다.

2) 연시제는 생존하신 어른께 세배하는 의미로써만 행하되 제사는 생략한다. 절사 또한 가족모임만 갖되 제사는 생략한다. 그 대신 불우이웃 돕기의 선행(가족 집단별 또는 개인별)을 실천함으로써 그 은공이 조상들의 명복을 기원해 주는 행동이 되도록 한다.

(5) 제례주관자

고인의 자녀가 평등하게 윤회 주관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지병으로 인한 행동제약이 있는 고인의 자녀 또는 건강한 자녀일지라도 만 70세 이상된 고인의 자녀는 윤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자신의 부모에 관한 제사의 짐을 며느리에게 이양시키는 일을 막기 위함이다.

(6) 제액 초복사상(除厄招福思想)

제사때는 불행을 액땀 해주고 오복을 주십사고 기원하여 사후의 영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지양하고 제례자체가 순수하게 고인 영혼의 명복을 빌어드리는 기회가 되도록 한다.

(7) 회연의 기능

생자 중심으로 제례를 구성하여 고인 자녀간의 친목도모의 기회가 되도록 한다.

(8) 종교

종파의 아집과 편견으로 인한 제례 파벌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종교적 색채를 띤 권위나 신비감을 제거함으로써 누구나 실행하기 쉽고 간편한 제례가 되도록 한다.

2. 제례 재구성 모델제시(Ⅰ, Ⅱ)

구 분	모델 Ⅰ	모델 Ⅱ	
기제	제사날짜	매년 사망일 또는 사망 전날, 사망일을 전후한 공휴일	매년 사망일 또는 사망일을 전후한 공휴일
	제사시간	늦은 저녁 식사시간 (오후 8-9시경)	참제인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주간 또는 야간 중 편리한 시간
	봉사범위	조부모와 부모(2대)	시부모와 친정부모(1대)
	봉사기간	조부모의 봉사는 딸자녀가 성인(만20세)이 될 때까지만 봉사한다.	· 지병, 또는 노쇠한 경우; 행동제약을 받기전까지만 봉사한다.
	참제범위	4촌 이내의 친척	고인의 자녀로 한정하며 자녀가 건강한 경우는 연령제한없이 본인이 희망할 때까지 참제 가능하다. (단, 3촌이상의 다른 친척이 참석을 원할 경우 참제 가능)
	상차림 및 제수음식	밥, 물, 고인의 기호품(1점이상) 또는 밥을 제외한 제수음식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가사 대체용역 이용 준비 가능	· 제수음식, 술, 생략 · 탁자를 놓고 고인의 생전시의 사진(또는 영정)을 놓은후 향을 피운다. · 탁자, 사진, 향이 없을 경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차림 대체효과 인정

구 분		모델 I	모델 II
연시제 · 절사	연시제	· 부모님 생존시까지만 행례 · 제수음식; 떡국 또는 떡국이 여의치 않을 때는 생자 중심의 식사(시장구입, 가사 대체용역 이용 준비 가능)	· 연시제 행례; 생략함 (웃어른께 세배만 드린다) · 제수음식; 생략함 · 개인 또는 가족집단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 실천한다.
	절사	· 부모님 생존시까지만 행례 · 제수음식; 송편을 비롯한 모든 음식은 시장구입, 가사 대체용역 이용 준비가능 · 성묘; 사후의 부모님 시신 또는 매장된 부모, 조상 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화장한 후 납골당에 보관한다.	· 절사 행례; 생략함 · 제수음식; 생략함 · 달을 보며 조상의 공덕을 기린다. · 개인 또는 가족집단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 실천한다. · 성묘; 사후의 부모님 시신, 매장된 부모 또는 조상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화장한후 자연산 천에 뿌림으로써 묘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제례절차		· 제수음식 상차림 앞에서 참제 인들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절을 2번 하거나 묵념 한다. · 개인 또는 대표자 한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간단히 기원한다.(30초-1분)	· 사진 놓인 탁자와 향을 피우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절을 2번 하거나 묵념한다. · 탁자, 사진, 향이 없을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방향 (동서남북 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 하거나 묵념한다. · 개인 또는 대표자 한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간단히 기원한다.(30초-1분)
제사주관자		·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주관하거나 남자 형제간에 매년 윤회 하며 행한다. · 아들이 없는 경우; 자매간에 매년 윤회 하며 행한다. · 절, 성당, 교회 등 종교집단에 제사 위임 가능	·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주관하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매년 윤회하며 제사를 주관한다. · 지병으로 행동제약이 있는 고인의 자녀 또는 건강한 자녀일지라도 만 70세 이상된 고인의 자녀는 윤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절, 성당, 교회 등 종교집단에 제사 위임 가능
불참제인 (不參祭人)		· 사진 앞 또는 부모님이 좋아 하시던 방향(동서남북 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하거나 묵념을 하고 간단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하여 그 공을 고인에게 돌린다.	· 사진 앞 또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방향(동서남북 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하거나 묵념을 하고 간단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하여 그 공을 고인에게 돌린다.

구 분	모델 I	모델 II
회연(會宴)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수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없거나 부족하면 배달음식을 시킬 수 있다.</li> <li>· 참제인들간에 친목을 다지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음을 피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단한 제례절차가 끝나면 고인 자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배달음식, 주문음식, 음식점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li> <li>· 처음부터 고인의 자녀들이 조용한 음식점에 모여 그 자리에서 간단한 제례절차를 행한후 회연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li> <li>· 어느 경우나 과음을 피한다.</li> </ul>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제례 재구성의 모델을 연구하기 위하여 중국 고대의 제사관습과 영혼관, 주자가례의 배경을 포함한 송유(宋儒)의 제사관을 고찰하였고 지금까지 행해져 내려온 우리나라 유교식 제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의 제사관, 종파(불교, 기독교, 천주교)간의 제례 방법과 절차, 중국과 일본의 제례 간소화 현황 등을 고찰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간단히 요약 결론화 하면 다음과 같다.

1. 효사상은 제례의 핵심으로써 계속 살려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효가 지나치게 부모 또는 조상에게만 국한 될 경우 혈연, 지연, 연고(緣故)중심의 경직된 사회가 되기 쉽다. 또한 인간사후는 인격체가 아니므로 효를 사후까지 연장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제례는 혈연, 지연을 초월한 인간애 실천 경험을 주는 기회로 탈바꿈해야 하며 생존하신 부모에 대한 효로 국한되어야 한다.

2. 제액초복사상(除厄招福思想)은 제사를 잘 지내면 조상신이 악신령을 몰아내어 불행한 일이 없도록 액땀 해주며 오복을 내려주고 자손의 번영을 이루게 해준다고 믿는 생자중심의 공리적 사상이다. 복이관 하늘(天)에 매여 있는 것으로써 하늘이 아닌 조상신은 제액 초복의 능력이 없다. 따라서 제액초복사상은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조상에게 제액초복을 기원하여 조상의 영혼에 부담을 주기보다는 생자(生者)로서 조상의 명복을 기원해야 한다.

3. 정성은 몸과 마음으로부터 바치는 산재(散齋), 치재(致齋), 재숙(齋宿), 목욕제계와 제수음식 마련시의 정성을 말한다. 목욕제계, 재숙을 제외한 산재와 치재는 현대생활에 부합되지 않으며 또한 시간제약이 심한 취업주부가 정성으로 제수음식을 직접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제수음식 마련에 관한 정성이 계속 요구될 경우 시장구입, 가사대체용역 이용, 또는 신도불이(身土不二)에 합당치 못한 음식을 준비한 가정은 모두 심리적 죄책감 내지는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4. 제수음식은 조선조 예학자들도 조상신이 실제로 와서 직접 음식을 먹는다고는 믿지 않았으며 「제사를 위해 모인 자손의 기(氣)가 조상의 기를 잡아당겨 잠시 오게 할 수도 있다」고 한 주자의 모호한 제사관에 따른 것이었다. 요컨대 제수음식은 조상신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아니라 이를 매개로 가부장권을 강화시키고자 한 의도에서 준비된 것이었으므로 제사와 제수음식은 무관하다. 따라서 제수음식은 생략되어야 한다.

5. 신주(神主)의 유래는 BC 6C경 중국 고대의 자산(子産)이 생자(生者)에게 시(尸)의 역할을 시켜 제사 지내게 한데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시(尸)를 간소화한 형태가 신주, 신주가 다시 간소화 된 것이 위패(位牌) 또는 지방(紙榜)이었다. 따라서 신주, 위패, 지방은 조상신의 실체가 아니므로 제례에서 생략되어야 한다.

6. 제례절차는 신주(또는 위패나 지방), 제수음식, 술 등과 완전 결부되어 구성된 순서로써 조상신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고 다시 감실로 모신다는 각본에 의해 구성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신주, 제수음식, 술)이 생략되면 제례절차는 당연히 생략되어야 한다.

7. 제사날짜와 시간을 사망일 또는 사망전날 밤 12시 이후로 하는 것은 분주한 현대생활에 부합되지 않는다. 제사의 현대적 의미가 형제 자매가 모여 부모를 기억하고 기리는 일이라고 볼 때 형제자매가 모이기 편리한 시간 즉, 사망일을 전후한 공휴일 또는 주간시간 또는 저녁 식사시간에 맞추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8. 젊은층으로 갈수록 참제범위가 축소되고 참제(參祭)기피현상이 우세하므로 봉사 범위는 부모 1대로만 하되 친정부모를 포함시키며 참제 범위는 고인의 자녀로만 한정시키는 것이 현실적이다. 연장자의 권한으로 2대 봉사이상을 고집할 경우 부모이외에 별 관심이 없는 미래 세대에서는 제사 그 자체가 완전 소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9. 제사주관자는 형제 자매간에 윤회하여 남녀 공히 부모님의 은공에 감사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하며 자신의 부모에 대한 제사준비를 스스로 함으로써 며느리에게 그 짐을 이양시키지 않아야 한다.

10. 기존 제례의 회연(會宴)기능 중 화목 효과를 존속시키기 위하여 회연준비는 생자중심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달음식, 주문음식, 가사대체용역을 이용한 음식, 가정밖의 음식점 음식 등 모두 이용 가능하여야 한다.

11. 가부장권에 미련이 남은 남성들은 가부장권 강화의 모체였던 유교식 제례의 변화나 개혁에 별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이다. 반면 학력이 높은 젊은 여성들은 제례의 간소화에 적극적이다. 따라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제례 간소화가 구성되고 실천되어야 한다.

12. 각 종파간(유교, 불교, 기독교, 천주교) 제례 방법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으나 신비감 고취 목적은 동일하다. 또한 불교, 기독교, 천주교의 제례는 유교식 제례가 그 기본 골격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신비감 고취를 위한 복잡하고 형식적인 종교적 제례방법 및 절차는 간소화되어야 하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지낼 수 있는 새로운 제례방법으로 개변(改變)되어야 한다.

13. 중국과 일본의 제례 간소화를 살펴보면 중국은 춘절(음력 1월 1일)에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들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민족 대이동을 하나 제사는 지내지않고 있으며 단순히 놀이를 하면서 생자간의 친목을 다지고 있고 중추절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달을 감상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으며 기제는 묘지에 가서 꽃을 놓고 묵념하거나 큰절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자유중국에서의 기제는 주야간 자손들이 편리한 시간에 행하는 경향이다. 일본가정에서는 기제를 행하지 않고 절에서만 행하며 고인이 된 3주기와 7주기에 주로 행한다. 기제절차는 단순히 꽃을 놓고 묵념만 할뿐이며 연시제는 없고 절사에는 꽃 한송이를 묘지에 놓고 묵념만 한다.

이상의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우리나라 제례는 매우 경직된 것으로써 조선시대에 머무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지구촌은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개인적 또는 국가적 차원의 생존을 위해 급속히 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나라 제례문화가 지체현상을 보이며 현실 또는 미래의 우리생활에 맞도록 개변되지 못하고 계속 유지된다면 제례로 인한 전근대적인 생활규범이 우리 일상생활을 구속할 것이며 나아가 미래로 지향해야 할 사회발전의 큰 장애요소가 될 것이며 사회적으로 죄인 아닌 심리적 죄인 또는 실제적 부도덕인이 아닌 심리적 부도덕인을 크게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우리나라제례는 현대 또는 미래의 우리생활에 부합되도록 대폭 간소화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예로부터 제례행례의 실제적 주관자로서 제례의 중심위치에 있었던 여성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이고 심층적인 제례 간소화에 관한 후속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인 제례 간소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2. 현행제례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불행을 염려하여 제례 간소화를 두려워하는 제액초복사상에 깊이 젖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례형성의 근본 취지와 간소화의 당위성에 대한 사회적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3. 유교식 제례의 기본틀을 계속 권장하고 있는 가정의례준칙의 폐지가 요구된다.

### 【참 고 문 헌】

- 경동교회 가정의례연구회(1995). 기독교인의 가정의례 지침, 경동교회
- 경향신문 1999년 12월 16일자
- 김경재(1996). 그리스도교 제례의식의 한국문화토착화 과제에 관한 연구, 한신대학교 한신논문집 특별호
- 김근수(1998). 현대불자가례, 부다가야
- 김명나(1989). 도시주부의 혼·제례에 대한 의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자(1984). 다례를 보는 현대인의 시각, 전통문화
- 김명혁(1984). 제례에 대한 기독교의 관점, 전통문화
- 김상혁(1989). 관혼상제, 서울:하서출판사
- 김선풍(1983). 역사로 본 제례와 한국인의 의식, 전통문화
-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주(1992). 논어대학고전총서, 서울대학교 출판부
- 문옥표(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79호
- 박도식(1998). 인생무상, 카톨릭출판사
- 박순천(1986). 도시주부의 가정생활관과 제례행례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정(1989). 도시주부의 제례행례의식과 제례행동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홍렬(1976). 한국 농민의 사회적 성격에 관한 연구, 인류학논집 2. 인류학연구회
- 새국어사전(1996). 동아출판사
- 손유미(1990). 서울시 주부의 통과의례에 대한 의식과 의례절식의 이용실태에 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198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정민사
- 양재연·임동권 외(1980). 한국풍속지, 을유문화사
- 이광규(1977). 친족집단과 조상숭배. 문화인류학 제9집, 한국문화인류학회
- 이광규(1984). 한국의 가족제도, 한국방송사업단
- 이기형외 2인(1982). 한국 공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8집
-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구(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유미(1991). 서울 근교 농촌주택의 의례생활과 공간사용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8호
- 이정우·김연화(1999). 도시주부의 가치지향성·제례의식·제례수행,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3(2)
- 이현숙(1983). 제사를 통한 당내친의 협동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옥재(1981). 제사에 대한 부녀자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 20
- 장삼식(1981). 대한한사전(大漢韓辭典), 진현서관
- 주재용(1995). 선유의 천주사상과 제사문제, 카톨릭출판사
- 최재석(1976).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개문사
- 홍남석(1992). 생활예절, 성암출판사
- 홍재룡(1984). 현대생활과 제례, 전통문화, 전통문화사
- 홍현주(1986). 조상제사에 대한 가치관 연구, 계명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大島連彦 大森志郎편저(1989) 日本を知る事典, 小林

## 共文堂

陶立璠 저, 김종식 역(1997) **중국민속학의 이해**, 집문당

知惠藏(2000.1.1) 朝日新聞社, 亞版印刷株式會社

蒯大申 祁詠紅 저, 박현규 역(1998) **중국민속학**, 백산자료원

Kim Kwang-ok(1992) "Socio-Political Implications of Resurgence of Ancestor Worship in Contemporary Korea" In Nakane Chie and Chien Chiao eds. *Home Bound: in East Asian Society* Tokyo: The Toyo Bunko, pp 179-203

## 고문헌

(1) 고문헌에 관한 저자 및 저서(古文獻)

- ① 沙溪 金長生(52세때인 1599년 완성) **家禮輯覽**
- ② 金集(1648년경) **疑禮問解**: 사계의 아들 김집(또

는 金樂)이父와 신의경의 공저인 상례비요를 인조 26년 목판으로 간행하고 父와 제자들과의 예문답을 의례문해로 정리하였다.

(2) 고문헌 역본

- ① 송시열 저·김종권 역(1994) **내훈**, 계녀서, 명문당
- ② 이덕무 저, 김종권 역(1993) **사소절**, 명문당
- ③ 이이(율곡)저·조용제 역(1986) **격몽요결**, 대진문화사
- ④ 이익 저(1997) **성호사설**, 민족문화추진회편, 솔출판사
- ⑤ 이재 저·이수영 역(1999) **사례편람**, 이화문화출판사
- ⑥ 유중립 저(1997)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편, 솔출판사